

노인주택 공급을 위한 제주도 고령자가구구성의 변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

A Statistical Review on the Changes in the Elderly Living Arrangements
in Chejoo-do for the Elderly Housing Supply

배 정 인*
Bae, Jeong In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in Chejoo-do for the elderly housing supply by using census data.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rate of living alone and living with spouse only of the elderly have been increasing. The trend in county was higher than that in city. Living alone rate of the elderly of Chejoo-do was higher than that of Korean average. Even in the oldest old, living alone rate has been increasing in Chejoo-do. It is a unique phenomenon in Korea and similar with U.S. In Chejoo-do, it is strongly required to evolve elderly housing by universal design for living alone elderly in county as well as for living alone elderly in city.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를 학문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며,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등이 노인문제를 부각시켜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범주는 크게 사회학 분야와 건축학 분야로 나뉘어 연구되어져 왔으며, 1990년대부터 노인주거에 관한 주제가 부각되었다. 1970년부터 1995년까지의 노인주거 관련 연구의 주제는 노인시설에 관한 것이 59편으로 27.9%, 동거주택에 관한 것이 32편 15.1%, 노인주택 일반에 관한 것이 51편 24%, 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것이 26편 12.3%, 노인여가시설에

관한 것이 20편 9.4%, 기타 24편 11.3%로 나타났다.¹⁾ 노인주거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시설의 주거성능의 파악 및 향상을 위한 것들이었고 필요성이 있는 연구들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같은 계열의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노인이 거주하는 환경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주택문제를 풀어나가려 할 때는 물리적인 환경 자체에만 시점을 고정시키는 연구 외에, 주택공급정책과 같은 매크로적인 시점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을 다루는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만 적절한 주택 공급을 통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적절한 주택공급은 단순히 노인 가구수의 수량적 파악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크로적인 관점에서의 질적인 파악이 병행

* 정회원, 안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1) 정무용 외, 노인주거관련 연구동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2 No.11, 1996.11, p.52-56

되어야 한다. 매크로적인 관점에서의 질적 파악이란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에 적합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획일적인 형태의 주택이 아니라, 각 가구의 특성별로 각기 다른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요구조건이 일정 범주에서 유형화되어 묶여질 수 있는 분류틀에 의하여 각 각의 수요량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수량의 파악에 머물지 않고,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질적인 파악을 수반하는 수량적 파악이 시도된 노인주택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관점과 주택계획학적 관점을 접목시킨 것으로서, 인구·가구와 주택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연결고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주택은 그 안에 거주하는 가족, 가구의 특성에 맞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특성의 파악을 개개의 가족단위로 하려는 관점의 계획은 주문주택을 설계하는 건축사의 관점이며, 사실상 대표적인 주택계획학적 관점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주택 공급 문제를 사회문제로 다루어야 할 때는 적절하지 않으며 보다 거시적인 시점에서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형태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학자들에 의한 관점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연구 성과를 적절한 형태의 주택과 연결짓기는 쉽지 않다.

필자는 이에 착목하여,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를 질적(가구유형별), 양적(가구유형별 가구수 및 그 비율), 지역적(전국, 도, 도시, 농촌별)으로 나누어 그 변천경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²⁾.

본 연구에서는 기 연구들에 이어 제주도의 고령자를 포함한 가구의 변천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별 및 가구 유형별로 고찰함으로써, 노인주택문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지역으로 제주도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조선왕조 개국 이후 정책적인 유교 윤리의 보급에 의해 가부장제가 강화되고, 노부모의 봉양이 젊은 부부의 가장 우선적인 의무 중의 하나로 여겨졌던 본토와는 달리 장남이 결혼과 동시에 독립된 가장권 재산권을 소유하며, 한 울타리 안에 동거할 경우라도 고부가 각기 독립된 취사 단위를 이루는 특유의 독립형 가계승형태를 지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이러한 전통적인 고령자의 높은 독립성은 오늘날의 고령자 가구구성에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할 경우 본토와는 다른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노인주택공급정책이 수립되어야만 할 것이기에 본토의 다른 지역보다는 제주도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각 가구의 특성별로 각기 다른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요구조건이 일정 범주에서 유형화되어 묶여질 수 있는 분류틀에 의하여 각 각의 수요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발간된 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서 제주도 고령자가구구성 관련 데이터를 찾아⁴⁾, 고령자 가구구성의 유

2) 배정인(2000) 노인주택 공급을 위한 고령자가구구성의 변화에 관한 통계적 연구-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Vol.11 No.1. _____(1999) A Statistical Review of Change in 'One Person & Couple' Households including the Elderly in Japan and Korea, 한국주거학회지 Vol.10 No.3._____(2000) 고령자 가구구성에 관한 통계적 연구 경북지역 기준

자녀와 동거가구의 변천경향을 중심으로, 안동개발연구 Vol. 11. _____(1999) 경북지역의 고령자 1인·부부가구에 관한 통계적 연구, 사회과학논총 Vol.11

3) 홍형욱(1992) 한국주거사, 민음사.p.148. 전통적으로 제주도 여성 노인은 배우자 사별 후에도 며느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된 취사단위를 영위해 왔다고 한다.

4) 인구주택 총조사는 그 명칭을 총인구 및 주택조사 등으로 그 명칭은 약간씩 달리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60년 첫 실시 이래 1966년,1970년시

형을 고령자들만 거주하는 「1인·부부」 가구, 결혼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기혼자녀와 동거」 가구, 그 밖의 「(편)부모+자녀·기타」 가구로 재구성하였으며, 고령자들만 거주하는 가구는 다시 「1인가구」와 「부부가구」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3세대이상동거가구」와 「(편)부모+부부가구」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분류틀은 각기 그에 적합한 노인주택의 유형을 제시하는 기본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요량의 파악은 구매력을 가진 가구수의 파악과 그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수의 파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민간주택공급업자에게는 기업의 사할이 달린 매우 긴요한 사항이 될 것이나, 주택문제를 사회문제로서 볼 때는 후자의 파악이 사회 복지 정책적인 면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사회복지 면에서 많은 배려를 필요로 하는 노인주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주택은 토지에 고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수요가 있는 지역의 특성에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책수립 및 그 시행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뉜 지역별 수요를, 예를 들면 각도 및 광역시 별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은 그 입지조건 및 기능의 차이에 의해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주택을 필요로 한다. 도시의 주택이 산업혁명 이후 직주분리의 길을 걸어온 것에 비하여 농어촌의 주택은 농어업 병용주택이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그 기능에 차이가 있어 도시주택과는 다른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거주자들의 인식부족과 주택정책의 부재로 도시주택과 다름이 없는 주택이 주로 보급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농어촌의 경우 고령자의 농어

업의 종사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심신이 약화된 고령자의 주거내 농어업 작업 관련 동작의 편리를 고려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도시와 농어촌을 우선적으로 나누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고령자 가구구성유형별 가구수를 전술한 분류틀에 의거하여 동부, 읍부, 면부로 나누어 파악하는 방법을 취했으며, 변천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령별 가구구성 유형별 가구수의 변화를 살펴본다. 둘째, 인구구조상의 특정 연령대의 인구 증감의 영향을 배제하고 보다 정확한 변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연령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가구구성 유형별 가구수의 비율의 변화를 고찰한다. 셋째, 경년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출생코호트별로 각 연령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가구구성 유형별 가구수의 비율의 변화를 추적한다⁵⁾.

또한 제주도가 본토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독립형 가계계승 형태를 취해온 점을 중시하여 고령자 1인가구의 변천경향이 본토와는 다른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각 연령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1인가구수의 비율의 경년변화를 전국평균과 제주도의 경우를 비교하며, 독립형 가계계승의 문화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경우와도 비교하여 제주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II. 가구구성의 변화

가구구성의 전체적인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단 전 연령의 1960년부터 1995년까지의 제주도와 전국의 가구구성의 변천을 살펴 본 것

행되었고 그 이후는 매 5년 마다 실시되어져 왔는데, 제주도 노인가구구성 관련 자료는 1966년에는 없다.

5) 연령별 가구구성 유형별 데이터는 1985년부터 있으며 가구의 연령별 데이터의 형태로 집계되어 있다. 가구의 연령별 가구구성 유형별 데이터는 1995년부터 집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년 변화를 살펴기 위해서는 가구의 연령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인가구와 부부가구 이외의 가구구성 유형은 전체적인 증감경향 외에는 경년변화를 살펴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 경년변화는 1인·부부가구에 한정했다.

표 1. 가구구성의 변천(전국·제주도, 전연령)

	총가구수		1인·부부가구			기혼자녀와 동거가구			(편)부모+자녀·기타		
			1인부부	부부가구	소계	(편)부모+부부	3세대이상	소계	(편)부모+자녀	기타	소계
1960	전국	4357600	100210 2.3%	통계없음		통계없음	1245525 28.6%		통계없음		
	제주도	64308	5726 8.9%	통계없음		통계없음	12683 19.7%				
1966	전국	5057030	117460 2.3%	224010 4.4%	341470 6.7%	69880 1.4%	1178700 23.3%	1248580 24.7%	3049400 60.3%	417580 8.3%	3466980 68.6%
	제주도	71465	통계없음	303748 5.4%		77318 1.4%	1294149 23.2%	1371467 24.6%	3684893 66.1%		
1970	전국	5576277	통계없음	303748 5.4%		77318 1.4%	1294149 23.2%	1371467 24.6%	3684893 66.1%		
	제주도	71465	통계없음	5769 8.1%		812 1.1%	13014 18.2%	13826 19.3%	49920 69.9%		
1975	전국	6647778	281007 4.2%	317908 4.8%	598915 9%	34492 0.5%	1339718 20.2%	1374210 20.7%	4181313 20.7%	493340 7.4%	4674653 70.3%
	제주도	90636	11039 12.2%	5220 5.8%	16259 18.0%	343 0.4%	13810 15.2%	14153 15.6%	56326 62.1%	3898 4.3%	60224 66.4%
1980	전국	7969201	382743 4.8%	478458 6.0%	861201 10.8%	47237 0.6%	1353745 17.0%	1400982 17.6%	4966863 62.3%	740155 9.3%	5707018 71.6%
	제주도	105166	11745 11.2%	5789 5.5%	17534 16.7%	440 0.4%	12674 12.1%	13114 12.5%	67414 64.1%	7104 6.8%	74518 70.9%
1985	전국	9571361	660941 6.9%	680621 7.1%	1341562 14.0%	66879 0.7%	1422830 14.9%	1489709 15.6%	5905606 61.7%	834484 8.7%	6740090 70.4%
	제주도	118144	14972 12.7%	6351 5.4%	21323 18.0%	409 0.3%	13254 11.2%	13663 11.6%	74159 62.8%	8099 7.6%	83158 70.4%
1990	전국	11354540	1021481 9.0%	942479 8.3%	1963960 17.3%	92158 0.8%	1418091 12.5%	1510249 13.3%	6783848 59.7%	1096483 9.7%	7880331 69.4%
	제주도	131367	16624 12.7%	7456 5.7%	24080 18.3%	648 0.5%	15149 11.5%	15797 12.0%	77919 59.3%	13571 10.3%	91490 69.6%
1995	전국	12958181	1642406 12.7%	1398508 10.8%	3040914 23.5%	121013 0.9%	1291864 10.0%	1412877 10.9%	7487980 57.8%	1016410 7.8%	8504390 65.6%
	제주도	146426	23156 15.8%	13421 9.2%	36577 25.0%	1006 0.7%	13313 9.0%	14139 9.7%	83267 56.9%	12443 8.5%	95710 65.4%

이 표 1이다.6) 전반적으로 기혼자녀와 동거가구 비율이 줄어들고 1인·부부가구비율이 높아지는 경년 변화를 보이고 있는 중에서, 모든 조사년도에서 제주도가 전국평균보다 기혼자녀와 동거가구비율이 낮으며 1인·부부가구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산업화가 일어나기 이전으로 전통적인 가구구성의 형태가 상당부분 남아있던 시기로 볼 수 있는 1960년 제주도의 1인가구 비율은 8.9%로, 당시 전국평균이 2.3%이었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 비로소 9.0%에 달했음을 고려할 때 제주도는 1

인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 전통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2는 같은 분류들에 의해 199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구구성을 제주도와 전국의 동부 읍부 면부로 나누어 본 것이다.

제주도와 전국 모두 동부, 읍부, 면부의 순으로 고령자 1인·부부가구 비율이 높아져 도시보다 농촌의 고령자 1인·부부가구 비율이 높은 것은 전국 공통의 현상임을 알 수 있는데, 동부, 읍부, 면부 전 지역에서 제주도가 전국평균보다 1인·부부가구 비율이 높다. 특히 고령자 1인가구 비율이 제주도에 가장 낮은 동부조차 전국에서 가장 높은 면부보다 고율인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 하겠다.

6)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집계항목이 조사년도에 따라 달라 일부 항목은 통계가 없다.

표 2. 65세이상 고령자를 포함하는 가구구성 (전국, 제주도, 1995년)

	총가구수	1인·부부가구			기혼자녀와 동거가구			(편)부모·자녀·기타		
		1인	부부	소계	(편)부모+부부	3세대이상	소계	(편)부모·자녀	기타	소계
전국	2182187	349020 16.0%	386282 17.7%	735302 33.7%	96181 4.4%	914248 41.9%	1010429 46.3%	245521 11.3%	190035 8.7%	436456 20.0%
제주도 전도	28276	9030 31.9%	3767 13.3%	12797 45.3%	768 2.7%	8831 31.2%	9599 33.9%	3285 11.6%	2505 9.2%	5880 20.8%
전국동부	1281174	150044 11.7%	167611 13.1%	317655 24.8%	37859 3.0%	640885 50.0%	678844 53.0%	167909 13.1%	11676 9.1%	284675 22.2%
제주도 동부	13257	3305 24.2%	1506 12.0%	4801 36.2%	350 2.6%	5194 39.2%	5544 41.8%	1579 11.9%	1333 10.1%	2912 22.0%
전국읍부	229220	45622 19.9%	45933 20.1%	91615 40.0%	11588 5.1%	83078 36.2%	94666 41.3%	23214 10.1%	19725 8.6%	42939 18.7%
제주도 읍부	11592	4388 37.9%	1650 14.2%	6038 52.1%	304 2.6%	2907 25.1%	3211 27.7%	1368 11.8%	975 8.4%	2343 20.2%
전국면부	671733	153354 22.8%	172678 25.7%	326032 48.5%	46734 7.0%	190185 28.3%	236919 35.3%	54308 8.1%	54444 8.1%	108842 16.2%
제주도 면부	3427	1437 41.9%	521 15.2%	1958 57.1%	114 3.3%	730 21.3%	844 24.6%	338 9.9%	287 8.4%	625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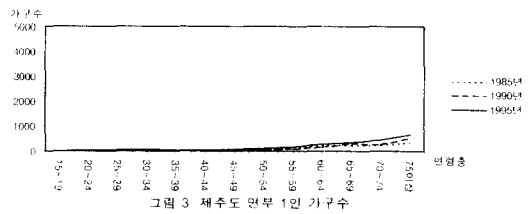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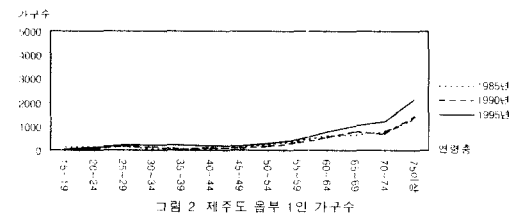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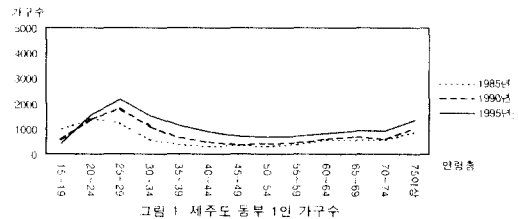
Ⅲ. 연령별 가구구성 유형별 가구수의 변화

제주도 동부⁷⁾, 읍부, 면부의 1인가구수의 연령에 따른 경년변화를 나타낸 것이 그림1,2,3이며 그림4,5,6은 부부가구수의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경년변화이다. 1인가구수는 읍부, 면부에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동부에서는 도시지역의 특성상 25-29세에서 1인가구의 피크가 있는 후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년이후는 역시 가령과 함께 1인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년변화를 보면 1985년에서 1990년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1990년에서 1995사이에 그 이전보다는 큰 폭으로 1인가구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년변화는 6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구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0년은 1985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1995년은 1990년보다 증가했다. 연령의 변화에 따른 가구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7) 1985년, 1990년은 시부이다. 이하 각 그림에서도 같음.

동부를 제외하고는 신혼부부의 피크는 찾기 어렵고 읍부 면부 모두 장성한 자녀가 떠난 고령자 부부가구가 부부가구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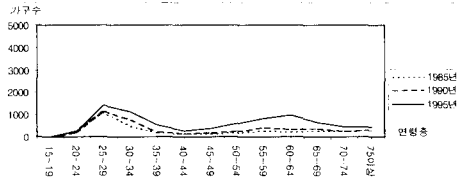


그림 4 제주도 동부 부부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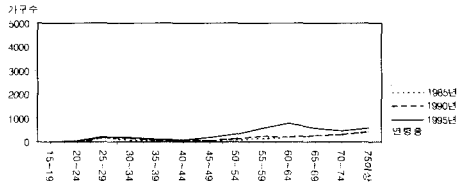


그림 5 제주도 읍부 부부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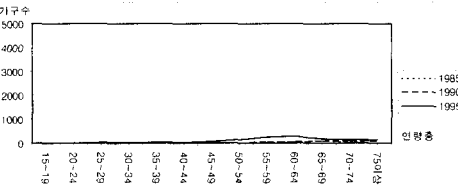


그림 6 제주도 면부 부부가구수

IV. 연령별 가구구성유형별 가구비율 및 출생코호트별 동향

가구유형별 가구수의 파악은 주택공급계획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변천 경향을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는 공급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가구수만의 파악으로는 부족하며 각 연령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각 유형별 가구의 비율의 변화 및 출생코호트 별 변천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구수만의 데이터로는 인구구조상의 특정 연령대의 증감 및 연령에 따른 자연감소 등에 영향을 받아 변천경향을 정확히 살필 수 없으며 또한 인구규모가 다른 지역간의 변천경향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7,8,9는 각 연령별 인구 중에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천을 나타낸 것이다. 경년변화를 보면 1985년에서 1990년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1995년에 증가를 보이는데 특히 읍부와

면부에서 고령자 1인가구 비율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변화를 보면, 동부, 읍부, 면부 모두 가령과 함께 고령자의 1인가구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가구수의 경우 동부에서 젊은 층의 피크가 두드러졌었으나 비율에서는 고령자의 경우가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부 읍부 면부 모든 지역에서 혼자 사는 경우가 젊은 층에서보다 고령자에게서 더욱 흔한 일임을 알 수 있는데, 그 비율은 동부, 읍부, 면부의 순으로 높아진다. 그런데, 그 증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기에 있어서도 지속된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기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국평균과 경북, 서울, 대구에서 75세 이상에서는 70-74세의 경우보다 1인가구 비율이 낮은 것이 공통된 현상이었으며 고령에 따른 심신의 쇠약을 고려할 때 남독이 가는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은 기 연구결과 중 고령자 1인가구비율이 가장 높았던 경북 면부의 경우이다⁸⁾.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나 75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75세 이상에서도 1인가구가 여전히 급증하는 것은 본토와는 다른 제주도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제주도의 전통인 노인의 독립적 생활태도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1은 노후에 장성한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의 각 연령별 인구 중에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천경향이다⁹⁾. 고령자의 1인가구 비율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13,14는 제주도의 동부 읍부 면부의 부부가구가 각 연령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동부의 경우 가구수에서는 신

8) 배정인(1999), 경북지역 고령자 1인 부부가구에 관한 통계적 연구, 사회과학논총 Vol.11. p.139

9) 자료출처: 미국 센서스보고서 1960,1980,1990 (Census of Population, 1960 PC(2)-4B, 1980 PC-1-D1-A, 1990 CP-1-1) 및 Current Population Reports 1970 에서 제작성

1인가구의 수가 노부부가구의 수에 비해 많지만 비율에서는 노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읍부와 면부에서는 수, 비율 양면에서 노부부가구가 높아, 젊은층보다는 고령자의 경우가 부부만이 사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동부, 읍부 면부의 순으로 높아진다. 경년변화를 보면, 젊은 층에서는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반하여, 중년이후는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 경향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기혼자녀와의 동거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점과 제주도 60-64세의 1995년 남녀 성비가 1990년보다 141% 증가한 점등을 고려 할 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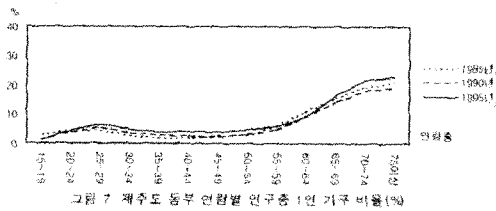


그림 7 제주도 동부 연령별 인구중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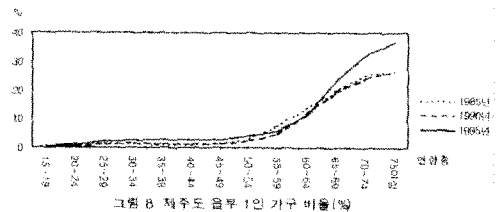


그림 8 제주도 읍부 연령별 인구중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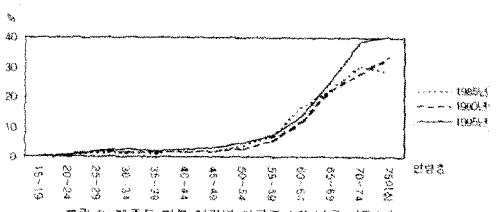


그림 9 제주도 면부 연령별 인구중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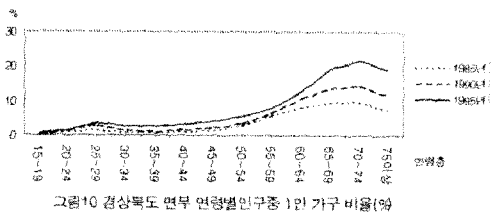


그림 10 경상북도 면부 연령별 인구중 1인 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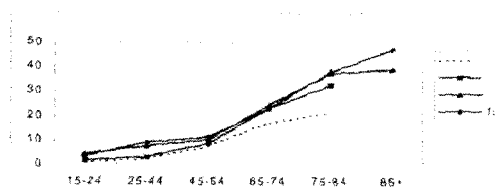


그림 11 미국 연령별 인구중 1인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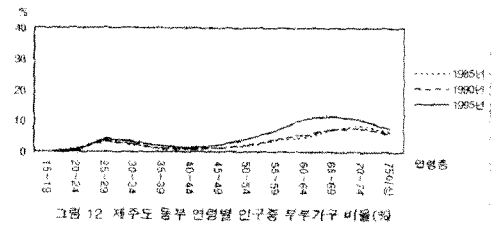


그림 12 제주도 동부 연령별 인구중 부부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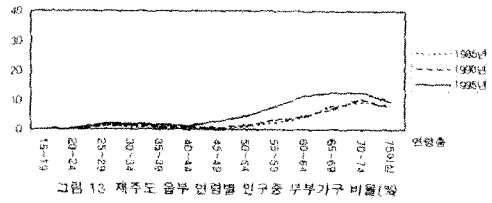


그림 13 제주도 읍부 연령별 인구중 부부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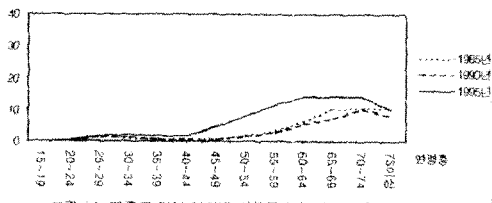


그림 14 제주도 면부 연령별 인구중 부부가구 비율(%)

그림 15,16,17은 제주도 동부, 읍부, 면부의 출생코호트별 1인가구비율의 경년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18,19,20은 출생코호트별 부부가구비율의 경우이다. 가령과 함께 동일 출생 코호트집단내의 고령자의 1인가구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상승하다가 70-74세를 고비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승률은 도시 보다 농어촌으로 갈수록 더욱 가파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1인가구의 경우 더욱 현저하다. 출생코호트별 비율의 경년변화를 예를 들면 1916-192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65-69세가 되는 1985년에는 1인가구가 각 연

령별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동부 15.7% 읍부 19.6% 면부 22.9%이며 그들이 70-74세가 되는 1990년에는 동부 18.3% 읍부 24.2% 면부 27.9% 이고 75세 이상이 되는 1995년에는 동부 22.9% 읍부 36.5% 면부 40.4%로 도시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욱 급격한 가구구성의 변화를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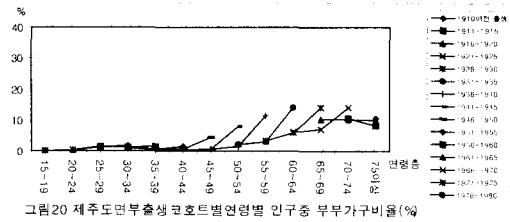


그림20 제주도면부출생코호트별연령별 인구중 부부가구비율(%)

V. 결론 및 제언

제주도의 고령자가구구성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부터 1995년까지의 전 연령의 가구구성변화는 기혼자녀와의 동거감소 및 1인·부부가구의 증가로 요약 할 수 있는데, 모든 년도에서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기혼자녀와의 동거율이 낮았다. 1995년 제주도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부부가구수는 동부 4801가구, 읍부 6038가구 면부 1958가구이며 기혼자녀와의 동거가구는 동부 5544가구, 읍부 3211가구, 면부 844가구이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동부, 읍부, 면부의 순으로 동거비율이 낮아지고 1인·부부가구 비율이 높아져 도시보다 농어촌이 고령자끼리만 사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본토에 비해 고령자 1인가구 비율이 특히 높았다.

1인·부부가구의 변천경향을 연령별로 1985년부터 1995년까지 고찰한 결과, 젊은 층보다 고령자에게서 1인·부부가구가 더욱 보편적임을 알 수 있었는데,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그 이전보다 가구수 및 비율이 증가하여, 비교적 최근의 변화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고, 비율의 증가는 동부, 읍부, 면부의 순으로 높아져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고령자 가구구성의 변화가 급격함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 1인가구의 변화경향을 전국평균 및 미국과 비교한 결과, 가령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상승하여 본토의 경우와는 달랐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드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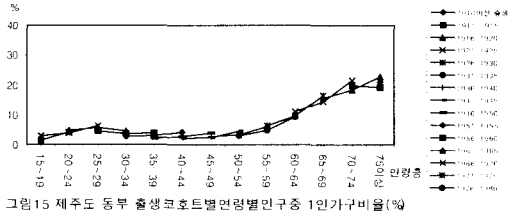


그림15 제주도면부출생코호트별연령별 인구중 1인가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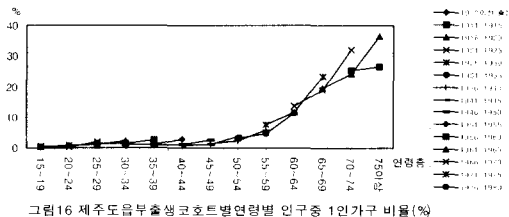


그림16 제주도읍부출생코호트별연령별 인구중 1인가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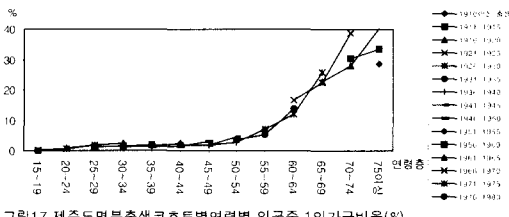


그림17 제주도면부출생코호트별연령별 인구중 1인가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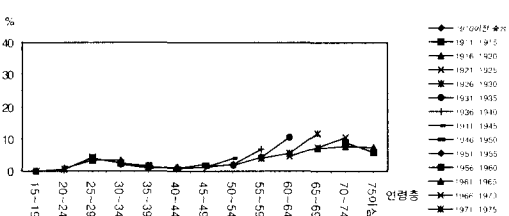


그림18 제주도면부출생코호트별연령별 인구중 부부가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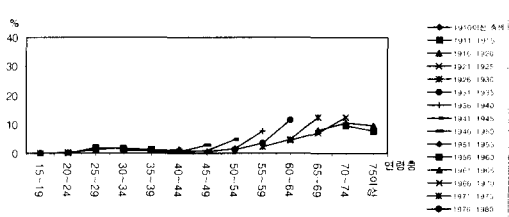


그림19 제주도읍부출생코호트별연령별 인구중 부부가구비율(%)

났다. 고령자 부부가구는 제주도가 전국평균보다 그 비율이 낮았으나, 기혼자녀와의 동거비율이 낮고 고령자의 남녀의 성비가 증가하고 있어 금후 고령자 부부가구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제주도의 고령자 가구구성은 본토보다 기혼자녀와의 동거율이 낮고 노인끼리만 사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1인가구비율이 높는데, 가령과 함께 지속적으로 1인가구비율이 상승하는 점 등에서 본토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밝혀졌다. 정부에서는 제주도의 노인주택공급정책을 세울 때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1인가구용 노인주택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며, 제주도의 특성상 후기 고령자의 1인가구가 많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에 따른 유형은, 동부의 1인가구수가 면부보다 많으나 읍부가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하고, 또한 동부, 읍부, 면부의 순으로 변화가 급격해짐을 고려하면 도시형과 함께 농어촌형도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 부부가구는 기혼자녀와 동거가구보다 적지만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유형이므로 부부가구용의 노인주택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1인가구용과 같은 이유로 도시형과 농어촌형을 함께 개발해야 할 것이다. 동거가구는 도시가 농어촌보다 수와 비율 모든 면에서 높으므로 도시형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정무웅의 1인(1996), 노인주거 관련 연구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11호
2.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3. Bureau of the Census, Census of Population 1960 PC(2)-4B, 1980 PC-1-D1-A, 1990 CP-1-1
4.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1970